

유럽, 비건식품 라벨링 어렵지 않아



유럽의 채식 식품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Euro Monitor)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조 4천억 원 규모였던 서유럽 대체육 시장은 5년 사이 78% 이상 성장해 2020년 2조 5천억 원 규모에 도달했고 같은 기간 대체 유제품 시장은 2조 3천억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 유로모니터는 대체육과 대체 유제품 시장이 향후 5년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엄격한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비건인구는 여전히 소수로, 유럽 전체 인구의 4% 미만이다. 하지만 특정 동물성식품을 제한적으로 섭취하거나 육류 섭취를 줄이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40%에 달한다. 육식을 지양하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육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복지 문제에 관한 관심 증가이다. 또한 채식 위주의 식단이 건강에 더 좋다는 인식이 점점 커져 육식을 줄이는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식 유형

		적색육	가금류	생선	계란	유제품
베지테지언	비건 Vegan					
	락토 Lacto					
	오보 Ovo					
	락토오보 Lacto Ovo					
세미 베지테지언	페스코 Pesco					
	폴로 Pollo					
	플렉시테리안* Flexitarian					

* 채식을 지양하지만, 때에 따라 동물성 식품도 제한적으로 섭취

비건 라벨링 예시



'VEGAN'

자체 로고 전면 표기



민간기관
'V-Label' 인증 부착



자료 <https://www.carrefour.fr>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채식 식품전문 브랜드뿐만 아니라 기존에 육류가공품과 유제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던 기업에서도 채식용 제품군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채식주의자를 타겟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채식에 적합한 식품이라면 적극적으로 채식 인증과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간장과 두부처럼 동물성 원료를 원래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 비건라벨을 부착하는 식이다.

유기농제품의 경우 EU정부에서 공식 인증제도와 로고를 운용하는 반면, 채식이나 비건식품 공식 인증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EU 식품라벨링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따르면 채식과 비건식 표기는 '임의 식품 정보(Voluntary food information)'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과학적인 정보에 기반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유럽 식품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채식용' 혹은 '비건'이라는 문구를 제품 포장에 삽입하거나 민간 비건 인증기관의 로고를 부착한다. 유럽에 기반을 둔 민간인증기관은 브이라벨(V-Label), 비건소사이어티(Vegan Society), 이브비건(Eve Vegan), 비건오케이(Vegan Ok), 베지테리언소사이어티(Vegetarian Society), 칼리타베제타리아나(Qualita Vegetariana) 등이 있다. 각 기관은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비건식품을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한다.

비건소사이어티와 브이라벨은 유럽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인증마크로 국내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브이라벨 (V-Label)

- 인증기관 : 유럽채식협회(EVU, European Vegetarian Union)
- 채식(Vegetarian), 비건(Vegan), 생채식(Raw Vegan) 인증
- 일반적인 인증 기준에 더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사용을 금함
- 유럽 전역, 미국, 중국, 한국 등 30개 국가에 등록
- 한국지사(www.vlabel.kr)를 통해 국내에서 인증 취득 가능



비건 트레이드마크 (Vegan Trademark)

- 인증기관 : 영국의 비영리단체 비건소사이어티(Vegan society)
-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동물이 관련된 GMO 사용 금지, 식물성 GMO는 사용 가능
- 한국지사(<http://www.vegansociety.kr>)를 통해 국내에서 인증 취득 가능

민간 인증기관의 일반적인 인증 기준

- 1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동물성 원료 사용 금지, 동물 노동력 이용 금지
- 2 제조 과정에서 1번 조항에 어긋나는 식품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음
- 3 제품 개발 과정에서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하지 않음

Key Point

육식을 줄이고 식물성 육류 대체품을 찾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 채식 및 비건 식품은 엄격한 채식주의자뿐만 아니라 육류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플렉시테리언에게도 좋은 선택지로 꼽히고 있다. 식품이 채식 및 비건식품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인증 절차 없이도 비건식품 표기가 가능한 만큼 국내 수출기업도 채식 및 비건 라벨링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고 로고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